

## ‘把个’句의 생성기제에 관한 고찰\*

### - 동사 ‘死’를 중심으로

남양우\*\*

#### 【목 차】

- |                |              |
|----------------|--------------|
| 1. 시작하는 글      | 1) 구문내적 생성기제 |
| 1) 문제제기        | 2) 구문외적 생성기제 |
| 2) 연구범위        | 3. 의미·화용적 차이 |
| 2. ‘把个’句의 생성기제 | 4. 맺는 글      |

#### 【초록】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객관사실에 대해 중국어는 ‘她的丈夫死了’, ‘她死了丈夫’, ‘她把个丈夫死了’라는 3가지 서로 다른 통사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중 ‘她死了丈夫’와 ‘她把个丈夫死了’는 자동사 ‘死’가 각각 SVO 구조, ‘把’字句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히 ‘她把个丈夫死了’는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경험자라는 점, 전치사 ‘把’의 목적어가 ‘个+N’ 구조라는 점에서 비전형적인 ‘把’字句이며, 이를 ‘把个’句라고 부른다. ‘把个’句는 구문내적 생성기제와 구문외적 생성기제가 있다. ‘把个’句는 ‘把’字句의 발전과정에서 구문내적으로 주관성의 강화에 의해 출현되었다. 구문외적으로는 소유자-대상 구문의 영향을 받았다. 소유자-대상 구문의 영향으로 인해 ‘死了+NP’와 같은 ‘Vi+NP’ 구조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결과 타동성이 강한 ‘把’字句에서 ‘她把个丈夫死了’와 같은 문장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她的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외에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마치

\* 이 연구 결과물은 202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남양우, 경남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kunming2005@naver.com)

막으로 ‘她把个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의외성, 원하지 않았던 일의 발생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처럼 이 세 문장은 동일한 객관사실에 대해 각기 상이한 의미·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把’자문, ‘把个’문, 소유자-대상 구문, 구문변화, 주관성, 감정이입

## 1. 시작하는 글

### 1) 문제제기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 她的丈夫死了.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
- (2) 她死了丈夫.  
그녀는 남편을 여의었다.
- (3) 她把个丈夫死了.  
그녀는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객관사실에 대해 중국어는 위의 3가지 다른 통사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1)은 SV 구조이고, 예(2)는 SVO 구조이며, 예(3)은 ‘把’字句이다. 이 중 예(2), (3)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동사 ‘死’는 자동사인데, 예(2)에서는 SVO 구조의 술어로 사용되었고, 예(3)에서는 타동성이 강한 ‘把’字句의 술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예(2)의 통사구조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sup>1)</sup>가 있다.

본고는 예(3)과 같은 문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문장은 비전형적인 ‘把’字句인데,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경험자라는 점, 전치사 ‘把’의 목적어가 ‘个+N’ 구조라는 점 그리고 술어가 자동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문장을 일반적으로 “把个’句”라고 부르는데, 독립적 연구대상으로서의 ‘把个’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는 예 (3)과 같은 비전형적인 ‘把’字句가 출현한 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사적 차이는 반드시 의미·화용적 차이를 수반한다는 인지문법의 관점에 따

1) 주로 ‘王冕死了父亲’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라, 예(1), (2), (3)의 의미·화용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일반적으로 ‘把个’句는 아래 예와 같이 ‘把’ 전치사구가 ‘把+个+NP’ 혹은 ‘把+一个+NP’ 구조인 문장을 가리킨다.

(4) 小张把个孩子生在火车上了.

小张은 아이를 기차에서 낳아버렸다.

(5) 老塘趴在一个长沙发上, 把一个沙发都占严了, ……

老塘은 긴 소파에 엎드렸고, 소파를 전부 차지했다.

(杉村博文 2002)

그런데 杉村博文(2002:22)에 따르면 ‘把+个+NP+VP’와 ‘把+一个+NP+VP’는 기능적, 의미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小张把个孩子生在火车上了’는 ‘小张把一个孩子生在火车上了’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把+个+NP+VP’는 NP와 VP간의 의미상 왜곡관계나 의외성을 나타내지만, ‘把+一个+NP+VP’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把’字句는 보통 타동사와 결합하지만,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把’字句는 타동성이 강한 구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把’ 전치사구가 ‘把+个+NP’ 구조이면서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특히 ‘死’가 사용된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2)</sup>

## 2. ‘把个’句의 생성기제

### 1) 구문내적 생성기제

翁珊珊(2012), 조경환(2014)은 ‘把个’句의 생성기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중 조경환(2014)은 ‘把’字句의 발전과정에서 ‘把个’句가 구문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출현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2) 기존 연구에서의 ‘把个’句는 타동사가 사용된 것도 포함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자동사‘把个’句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통상적 명칭인 ‘把个’句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경환(2014:117)은 ‘把个’句의 출현이 주관성(subjectivity)의 강화, 즉 ‘주관화(subjunctification)’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주관성을 주어와 화자와의 상대적인 관계로 보았는데, 주관성이 강해질수록 주어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화자의 영향력이 커진다. 반면 주관성이 약해질수록 주어의 영향력은 강해지고 화자의 영향력은 약해진다. 즉 ‘把个’句는 ‘把’字句에서 주어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화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결과로 생성된 것이다.

조경환(2014:101)은 ‘把’字句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위치이동성’으로 보았다.<sup>3)</sup> 그리고 ‘把’字句가 나타내는 이동을 다시 객관이동과 주관이동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이동이란 이동의 대상이 실제 위치변화를 겪는 것을 말한다. 그는 ‘把’字句의 객관이동을 다시 给予류, 放置류, 当作류로 세분하였다.

(6) 我把那本书送给了老师.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7) 他把数学书放在桌子上.

그는 수학책을 책상위에 놓았다.

(8) 我一直把你当客人对待.

나는 쭉 너를 손님으로 대접해 왔다.

예(6)과 (7)은 각각 给予류와 放置류에 속하는데, 把NP가 실제적 위치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객관이동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반면 예(8)은 좀 다르다. 이 경우 把NP가 실제적 위치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경환은 이러한 当作류 ‘把’字句를 객관적 이동의 파생이며, ‘把NP’의 은유적 이동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当作류 ‘把’字句는 “심리공간에서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물질공간의 이동이 심리공간의 이동으로 은유·확장된 것”<sup>4)</sup>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이동에 반해 주관이동은 실제적 이동을 하지는 않지만 화자에 의해 가상적인 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관념상의 이동을 의미한다.<sup>5)</sup>

3) 이러한 관점은 陶红印·张伯江(2000), 张旺熹(2001)와 동일하다.

4) 조경환(2014:103)에서 인용.

5) ‘当做类’ 역시 실제적 이동이 아니라 가상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주관이동이라 볼 수 있다. 사실 ‘当做类’는 객관이동과 주관이동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当做类’를 객관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논항과 관계가 있다. 给予류, 放置류, 当作류 동사는 모두 3개의 논항을 가진다. 반면 주관이동 ‘把’字句의 동사들은 2개의 논항을 가진다. ‘把’字句에서 当做类는 ‘A를 B로 여기다, 인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주어가 자신의 정신적 공간 중 특정 위치에 있던 A를 다른 위치인 B로 이동시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주어가 물리적 특정 위치에 있던 A를 다른 장소 B로 이동시키는 것”(남양우 2020b:25)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妈妈把衣服洗干净了.

엄마는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

(10) 这件事把他气死了.

이 일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예(9), (10)은 실제적 이동이 없다. 단지 ‘상태변화’가 있을 뿐인데, 조경환은 이러한 상태변화를 심리적 이동으로 파악했다.

(11) a. 백운산 어름에서 큰 산맥 하나가 백두대간과 갈라져 서쪽으로 뻗어간다.<sup>6)</sup>

b. There was a fire last night across the river, through the canyon, and over the mountain.

어제 저녁, 강 건너 저쪽의 계곡 너머, 산 저편에서 화재가 있었다.

심리적 이동이란 예(11)처럼 실제적 이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개념화자의 시선에 따라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조경환(2005:80)은 이러한 심리적 이동을 상태변화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妈妈把衣服洗干净了’에서 ‘衣服’는 실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태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변화는 이동] 은유에 의해 이러한 상태변화는 곧 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sup> 그는 주관적 이동 내에 의도적 처치와 비의도적 처치가 있다고 보았다.

(12) a. 张三把汽车洗干净.

张三은 차를 깨끗하게 씻었다.

b. 偏又把凤丫头病了.

하필이면 또 희봉이 계집까지 병이 났어.

조경환(2014:116)

의도는 주어의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은 주어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12a)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어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화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예(12b)와 같은 ‘비의도적 처치류’가 출현할 수 있다. 즉 의도적인 처치류에서 비의도적인 처치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경환(2

6) 조경환(2005:79)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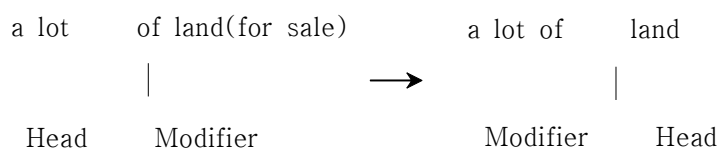
7) [변화는 이동] 은유는 보편적 은유이다. ‘우유가 상했다’를 ‘우유가 맛이 갔다’로 표현하는 것, ‘그는 대머리가 되어 가고 있다’, ‘He is going bald’ 등은 상태변화를 위치변화로 파악한 은유적 표현이다.

014)은 ‘把’字句가 객관이동에서 주관이동으로, 그리고 다시 의도적 처치에서 비의도적 처치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천의 동기는 ‘주관성의 강화’이다.

翁珊珊(2012)의 견해 역시 조경환(2014)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把’字句가 통시적으로 工具>处置>致使>非自愿允让의 변천과정을 가졌음을 제시한 후, ‘把’字句가 工具义에서 非自愿允让义로 변한 것은 주어의 통제성은 점차 감소하고, ‘把’ 뒤 목적어의 자기 통제성은 커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她把个丈夫死了’와 같은 非自愿允让义 ‘把’字句를 중국어 내부변천의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工具义에서 非自愿允让义로의 변천과정에서 어째서 주어의 통제성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조경환(2014)과 翁珊珊(2012)은 ‘把’字句의 통시적 변화과정에서 ‘把个’句를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把’字句의 내부적 변천의 결과로 ‘把个’句가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Traugott&Trousdale(2013)가 제시한 구문변화(constructional changes)와 유사하다. 그들은 저서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에서 구문화를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의미 쌍의 생성”으로 정의하고, 구문변화를 “한 구문의 내부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고 정의했다. 구문화의 예로 ‘a lot of a N’을 들 수 있다. ‘a lot of a N’은 원래 ‘lot’이 핵이고 ‘of a N’은 수식어였지만, 현재는 ‘a lot of’가 수식어이고 ‘N’이 핵이다. 즉 형식과 의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그림1> ‘a lot of a N’의 구문화<sup>8)</sup>



구문변화의 예로는 way-구문을 들 수 있다. way-구문의 중심의미는 ‘She made her way upstairs(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처럼 방법해석용법이다. 그런데 way-구문은 ‘John whistled his way home(존은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갔다)’처럼 태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태도해석용법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한 구문이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로 확장된 것을 구문변화라 할 수 있다.

8) 박원기·강병규 공역(2018:80)

그런데 이러한 구문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 거론되는 예로 영어에서는 이중타동구문, 사역이동구문, way-구문, 존재구문 등이 있으며, 중국어에서도 이중타동구문, 존현구문, VN了 구문 등을 통해 구문변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이중타동구문은 (1)행위자가 수용자에게 성공적으로 대상을 받게 하다(Joe gave Sally the ball), (2)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물을 전달하는 것이 만족 조건 안에서 암시되다(Joe promised Bob a car), (3)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다(Joe permitted Chris an apple), (4)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다(Joe refused Bob a cookie), (5)행위자가 수용자에게 대상을 받도록 의도하다(Joe baked Bob a cake), (6)행위자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수용자에게 대상물을 받게 하다(Joe bequeathed Bob a fortune)가 있으며, 중국어 존현문의 경우 (1)정태적 존재(沙发上坐着一位老人), (2)동태적 존재(天上飞着一只鸟), (3)사건의 존재(台上唱着大戏)가 있다.<sup>9)</sup> 양자 모두 중심의미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것은 구문이 변화가 없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는 동적인 것이며, 구문 내에 확장하려는 모종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把’字句가 여타 구문들처럼 구문내적 힘에 의해 중심의미에서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把个’句가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把个’句 생성의 구문내적 기제이다.

## 2) 구문외적 생성기제

본고는 ‘把个’句가 출현한 데에는 구문내적 요인 외에 구문외적 요인의 작용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把个’句의 출현에 구문외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소유자-대상 구문이다.

소유자-대상 구문(领主属宾句)은 SVO 구조를 가지면서, 주어와 빈어의 관계가 소유자-대상의 관계인 문장을 가리킨다. 소유자-대상 구문의 대표적 예는 ‘王冕死了父亲’이다.

CCL을 통해 조사해보면, ‘사람주어+死了+목적어’ 구조의 문장은 송대(宋代)에 처음 출현한다. 그런데 동사 ‘死’는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SVO 구조의 문장에 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石毓智(2007)는 중국어에서 ‘王冕死了父亲’ 류의 문장이 생성된 기제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그는 우선 ‘王冕死了父亲’, ‘他来了两个客户’와 같은 소유자-대상 구문이 존현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他来了两个客户’는 소유자-대상 구문인데, 여

9) 구문의미의 확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Goldberg(1995), 남양우(2020a) 참고.

기서 인칭대명사 ‘他’를 장소어 ‘他家’의 환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존현문의 특징 중 하나는 장소어가 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원래 수동자 목적어 뒤에 위치했으나, 동보구조의 영향으로 비결과성 전치사구가 술어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石毓智(2007)는 주장한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원래 ‘辄含饭著两颊边’, ‘埋玉树著土中’과 같은 어순의 문장에서 ‘辄两颊边含饭’, ‘土中埋玉树’의 어순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동보구조가 정립되기 이전, 한 성분이 비타동의 성질을 지니면서 목적어와 관련될 때 그 어순은 ‘VOR’ 만 가능했다. 즉, 송대 이전에 ‘死’가 어떤 동작으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 목적어 뒤에만 위치하였다. 하지만 송대에 동보구조가 정립되면서 ‘VOR’ 구조가 ‘VRO’ 구조로 변화하였고, 결과보어 ‘死’는 의미상의 주어<sup>10)</sup> 앞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사가 어떠한 화용상의 요인으로 불확실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死+NP施事/主体’ 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13) 上天生我, 上天死我, 君王呵不可! (『元刊杂剧三十种·晋文公火烧介子推』)

(石毓智(2007:46))

石毓智(2007)는 이러한 동목구조의 출현으로 인해 ‘死’가 새로운 유형의 존현문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王冕死了父亲’과 같은 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石毓智(2007)의 이러한 주장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他来了两个客户’와 같은 문장이 宋代에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L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宋代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장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宣恒大(2011)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 宣恒大(2011:91)에 따르면, ‘V+了’ 구조가 확실히 정립된 것은 宋代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V+了’ 형식의 은현문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후 元明 시기부터 ‘V+了’ 형식의 은현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清代에 이르러서야 그 수가 많아진다.

다음으로 石毓智(2007)의 주장에서 중요한 논거가 되는 예(13) 역시 문제가 있다. 帅志嵩(2008:260)은 예(13)에서의 ‘死’는 초래용법(致使用法)으로 사용된 것인데, ‘王冕死了父亲’에서의 ‘死’는 초래용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각각의 문장에서 사용된 ‘死’의 어휘개념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上天死我’에서 ‘王冕死了父亲’으로 발전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11)</sup> 따라서 ‘王冕死了父亲’과 같은 용법의 생성기제에 대해,

10) 원문에는 ‘施事/主体’로 표기되어 있다.

11) 石毓智(2007:43)는 宋代 이전에는 ‘一人死了’처럼 ‘S+死’ 구조만 가능하고, ‘死了一人’와 같은 구



帅志嵩(2008)은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근대중국어에서 ‘NP1+死了+NP2’와 동일한 뜻으로 ‘NP1+丧了+NP2’와 ‘NP1+亡了+NP2’가 있음을 주목하여, 이를 통해 ‘王冕死了父亲’의 생성기제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帅志嵩(2008)은 통시적 관점에서 동사 ‘丧’, ‘亡’, ‘死’의 통사구조를 갑식과 을식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甲: 当事+动词+对象

乙: 对象+动词

‘丧’의 경우, 상고중국어에서 갑식과 을식 모두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갑형에서 ‘丧’의 의미는 ‘잃어버리다(丢失, 失去)’의 의미이며, 주어와 빈어의 관계는 소유자-종속 관계이다. 을형에서는 ‘死’와 마찬가지로 ‘죽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亡’ 역시 상고중국어에서 갑식과 을식 모두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갑형에서 ‘亡’의 의미는 ‘상실하다(丧失)’ ‘잃어버리다(丢失)’의 의미이며, 을형에서는 ‘멸망하다(灭亡)’의 의미이다.

东汉 시기가 되면, ‘丧’과 ‘亡’의 용법에 변화가 생긴다. 주요 용법은 여전히 ‘상실하다’, ‘잃어버리다’이지만, 을식에서는 ‘사망하다(死亡)’의 의미 용법이 출현했다. 그런데 姚秦 시기에 이르면 ‘丧’이 ‘사망하다’의 의미로 갑형에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가 되면, ‘丧’이 ‘사망하다’의 의미로 갑형에 사용되는 것이 보편화된 다. 즉 ‘丧’은 ‘当事+丧(死亡)+对象’의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곧 ‘NP1+丧(死亡)+NP2’ 구조이다.

상고중국어에서 ‘丧’, ‘亡’, ‘死’의 의미는 각각 구분이 있었으나, 의미의 변화과정에서 이러한 구분이 점점 적어졌고,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丧’의 ‘当事+丧(死亡)+对象’ 용법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当事+死+对象’ 용법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王冕死了父亲’과 같은 문장이 생기게 된 것이다. 본고는 帅志嵩(2008)의 이러한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王冕死了父亲’이라는 문장은 清代의 문헌 『儒林外史』중 ‘这人姓王名冕, ……七岁上死了父亲’에서 나온 것으로, 문법학자들에 의해 일부 변형된 것이다.<sup>12)</sup> 하지만 ‘NP1+

조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帅志嵩(2008:262)은 ‘前皇后帝万千年, 死了不知多与少(吴福祥(1998:453))’과 같은 사례를 근거로 ‘死了+NP’ 구조가 晚唐五代 시기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帅志嵩(2008:261)은 ‘多与少’ 뒤에 ‘前皇后帝’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死了不知多与少’를 ‘死了+NP’ 구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 帅志嵩(2008: 261) 참고.

死了+NP2' 구조<sup>13)</sup>는 宋代에 분명 출현하기 시작한다.

(14) 万三员外女儿万秀娘死了夫婿, 今日归来, …… (话本『山亭儿』)

(15) 今日听得说万员外底女儿万秀娘死了夫婿, 带着一个…… (『话本选集』)

그리고 元代에도 여전히 출현하다가 清代가 되면 'NP1+死了+NP2' 구조가 보편화 되어 사용된다.<sup>14)</sup>

한편 '把个'句 역시 宋代에 처음 출현하는데,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把个'句는 타동사와만 결합하고, '死'와 같은 자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했다.

(16) 看他意思, 便把个仕都轻看了. (『朱子语类』)

그의 뜻을 보아하니, 그는 벼슬을 경시한다.

元代 역시 마찬가지로, '把个'句의 수가 많지 않고 결합하는 동사 역시 타동사이다.

(17) 只因这一迁, 把个苦寒地面变作花锦世界. (『话本选集』)

단지 이 이동으로, 빈궁한 지역을 변화한 곳으로 변화시켰다.

이후 明代에 이르면 동사 '死'가 사용된 '把个'句가 출현한다.

(18) 这就是小婿. 不幸把个丫头死了. 『醒世姻缘传』

여기는 내 사위인데, 안타깝게도 계집종이 죽었지.

(19) 可可的造化低, 把个丫头又死了. 『醒世姻缘传』

可可의 운이 나빠서 계집종이 또 죽었다.

清代에는 '死'가 사용된 '把个'句가 더욱 많아진다.

(20) 不幸今早又把个老妻死了. 『儒林外史』

불행히도 오늘 아침에는 아내가 죽었다.

(21) 贾老儿既把个大儿子死了, ……『老残游记』

贾노인은 큰아들이 죽었다.

13) 이때 NP1과 NP2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소유자-종속 관계(领属关系)이다.

14) 石毓智(2007:43) 참고.

‘NP1+死了+NP2’ 구문과 ‘把个’句<死>의 출현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宋代에 ‘NP1+死了+NP2’가 출현하면서 자동사인 ‘死’가 목적어를 가지는 용법이 출현한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NP1+死了+NP2’ 구조는 출현빈도가 많아지고, 보편화된다. ‘把个’句 역시 宋代에 그 용법이 발견되지만, 이때의 ‘把个’句는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했다. 이것은 ‘把’字句에서 把의 목적어가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벗어난 비전형적인 용법이긴 했지만, 아직 ‘把’字句의 술어가 타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把个’句는 元代에도 출현하다가 明代에 이르러 자동사 ‘死’와 결합하는 용법이 출현하게 된다. 이것은 ‘把’字句의 술어는 타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을 깬 것인데, 여기에는 ‘NP1+死了+NP2’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P1+死了+NP2’ 구조의 보편화로 인해 ‘死了+NP’ 구조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타동성이 강한 ‘把’字句에서 자동사 ‘死’가 사용될 수 있게 된 촉매제가 되었다. 즉 ‘把个’句<死>의 출현에 ‘NP1+死了+NP2’ 구문이라는 별개의 구문이 영향을 준 것이다.<sup>15)</sup>

### 3. 의미·화용적 차이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통사적 차이는 의미 혹은 화용적 차이를 수반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서두에서 제시한 다음 문장은 의미 혹은 화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 (22) 她的丈夫死了.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
- (23) 她死了丈夫.  
그녀는 남편을 여의었다.
- (24) 她把个丈夫死了.  
그녀는 남편이 죽어 버렸다.

예(22)은 동사 ‘死’의 전형적 통사구조이다. 의미적으로 대상(theme)이라고 할 수 있는 NP(그녀의 남편)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서술할 뿐, 그래서 그녀가 안쓰럽다든지 혹은 그녀가 불행하다든지 하는 등의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입은 없다.

15) 구문과 구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남양우(2015), 남양우(2021) 참고.

예(23)은 ‘NP1+死了+NP2’ 구조로, 동사 ‘死’의 전형적 통사구조인 ‘NP+死了’와 다르다. 혹자는 ‘她死了丈夫’는 ‘她的丈夫死了’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언어의 경제성에 배치된다. 두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她的丈夫死了’로 표현하면 되는 것을 굳이 ‘死’의 논항구조를 어겨가면서 ‘她死了丈夫’라고 할 이유가 없다. ‘她死了丈夫’가 ‘她的丈夫死了’와 다른 것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她死了丈夫’에는 그녀의 남편이 죽어서 그녀가 안쓰럽다 혹은 그것이 그녀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王冕死了父亲’이 원래 처음 출현한 문맥에서 잘 드러난다.

(25) 这人姓王名冕, 在诸暨县乡村里住, 七岁上死了父亲, 他母亲做些针指, 供给他到村学堂里去读书. 看看三个年头, 王冕已是十岁了. 母亲唤他到面前来说道: “儿阿, 不是我心要耽误你. 只因你父亲亡后, 我一个寡妇人家, 只有出去的, 没有进来的; 年岁不好, 柴米又贵, 这几件旧衣服和些旧家伙, 当的当了, 卖的卖了.”

이 사람은 성이 왕이고, 이름은冕이다. 諸暨현의 시골에 살았는데,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의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서 그를 학당에 보내 공부시켰다. 3년이 되어 王冕은 열 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를 불러 앞에 두고 말했다. 아들이, 내가 너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건 없었다. 시절이 좋지 않아 땀감과 쌀은 비싸구나. 오래된 옷들과 물건들은 저장잡힐 수 있는 것은 저장잡히고, 팔 수 있는 것은 팔았다.

예(25)의 내용을 보면 ‘王冕’에게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불행은 ‘七岁’라는 단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만약 ‘王冕六十岁上死了父亲’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수용도는 현격히 떨어진다. 한 개인에게 있어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무척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예순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王冕的父亲死了’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她死了丈夫’에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石毓志(2007), 沈家煊(2009), 任鷹(2009) 등은 ‘王冕死了父亲’과 같은 소유자-대상 구문의 손실 의미가 은현문(隱現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은현문은 존현문 중에서 어떤 장소에 모종의 대상이 출현하거나 사라짐을 나타내는 구문을 말하는데, ‘NL+VP+NP’의 형식을 가진다.

(26) 家里来了一位客人. (출현문)

집에 손님이 오셨다.

(27) 村里死了一位老人. (소실문)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

예(26)은 집이라는 장소에 손님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인가 더해지는 것이다. 반면 예(27)은 마을이라는 장소에서 노인의 사라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소를 기준으로 원래 존재하던 무언가가 빠진 것이다.

(28) 他来了客人.

그는 손님이 왔다.

(29) 王冕死了父亲.

王冕은 아버지를 여의었다.

예(26), (27)의 NL 자리에 각각 ‘他’, ‘王冕’을 넣으면 예(28), (29)와 같은 소유자-대상 구문이 된다. 예(28)에서 ‘他’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없던 손님이 생긴 셈이다. 그리고 예(29)에서 ‘王冕’을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있던 아버지가 없어진 셈이다. 그래서 두 문장은 각각 획득과 손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NP1이 장소이면 출현과 소실 의미가 되고, NP1이 사람이 되면 획득과 손실 의미가 된다. 이러한 관련성 때문에 石毓志(2007), 沈家煊(2009), 任鹰(2009) 등은 예(28), (29)를 일종의 은현문으로 보았으며, ‘王冕死了父亲’이 가지는 손실 의미, 주관적 의미가 은현문(隱現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은현문과 소유자-대상 구문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관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시기적으로 예(26), (27)과 같은 은현문이 먼저 출현하고 그 이후에 예(28), (29)와 같은 소유자-대상 구문이 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자-대상 구문은 은현문을 바탕으로 확장된 용법이기 때문이다. 즉 중심이 되는 은현문이 먼저 존재해야 그 확장인 소유자-대상 구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은현문과 소유자-대상 구문의 출현시기를 살펴보면 은현문이 소유자-대상 구문보다 먼저 출현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NL+V了+NP’ 형식의 은현문은 시기적으로 빨라도 宋代가 되어서야 출현했다. 宣恒大(2011)에 따르면, ‘了’는 宋代에 와서야 비로소 확실히 ‘V了’ 어순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은현문의 용법으로 사용된 사례도 매우 적다. 한편 소유자-대상 구문은 ‘万秀娘死了夫婿’ 등의 사례를 통해 宋代에 확실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은현문이 소유자-대상 구문보다 일찍 출현했다고 할 수 없으며, 宋代라는 동일 시기에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王冕死了父亲’의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의 의미는 은현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NP1+死了+NP2’라는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비대격 동사<sup>16)</sup>라 하더라도 논항은 1개이지, ‘王冕死了父亲’처럼 2개일 수 없다. 그렇다면 자동사가 2개의 논항을 가지는 구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출현한 것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이유를 언어사용자가 ‘NP1+死了+NP2’라는 특수한 형식을 통해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死’외에 다른 자동사가 출현하는 소유자-대상 구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 他飞了一只鸽子. <sup>17)</sup>

그는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다.

(31) 他掉了头发.

그는 머리카락이 빠져 버렸다.

예(30)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것은 ‘그’에게 부정적이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다. 예(31)에서 그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 역시 부정적이면서 원치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飞’, ‘掉’ 모두 자동사이지만 ‘NP1+Vi了+NP2’라는 형식을 통해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의 의미는 ‘NP1’, ‘Vi了’, ‘NP2’라는 개별 요소의 합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Goldberg(1995)가 주장한 구문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다음으로 예(24)의 화용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把个’句의 의미·화용적 특징에 대해서는 王惠(1997), 杉村博文(2002)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王惠(1997)에 따르면 ‘把个’句는 기본적으로 의외성(出乎意外)을 나타낸다. 동시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불만, 질책 등의 주관적 평가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대상은 주어이다.

(32) a. 他撞倒了一个老太太.

그는 노부인을 받아 넘어뜨렸다.

16) 필수논항이 하나인 동사(자동사)는 비능격 동사와 비대격 동사가 있다. 이 중 비능격 동사는 논항이 논리주어이다. 반면 비대격 동사는 논항이 논리목적어이다. 비능격 동사의 논항은 문장에서 행위자(agent) 주어로 실현되고, 비대격 동사의 논항은 대상(theme) 주어로 실현된다.

17) 沈家煊(2000)에서 인용.

18) Goldberg(1995)에 따르면 구문의미란 “문장 안의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구문의미는 개별 요소의 합보다 크다.

b. 他把个老太太撞倒了.

그는 노부인을 받아 넘어뜨려 버렸다.

王惠(1997:211)

노부인을 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예(32a)는 객관적 서술을 하고 있지만, 예(32b)는 질책의 의미가 있다.

杉村博文(2002) 역시 ‘把个’句가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는데, 그는 더 나아가 ‘把个’句의 이러한 의외성 의미가 생기게 된 기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杉村博文(2002:24)는 ‘把个’句에서 한정적 명사가 把의 목적어로 사용된 사례에 주목하였다.

(33) 杨杰看他缸里水干了, 挑起水桶, 不大一会儿, 给老汉挑了两担水, 把个老汉感动得简直不知说什么好了.

杨杰은 그의 단지에 물이 빈 것을 보았다. 물통을 메고 곧 노인에게 물 두 짐을 날라 주었다. 노인은 감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个’는 원래 비한정을 나타내는 표지이다.<sup>19)</sup> 그런데 예(33)의 ‘把个老汉’에서 ‘老汉(노인)’은 앞선 문장에서의 ‘他’를 나타내는 한정적 명사이다. 통상적으로 ‘把个’ 다음에는 한정적 명사가 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33)에서 ‘把个老汉’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화자가 ‘老汉’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함으로써<sup>20)</sup> 청자로 하여금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외성’이라는 화용적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杉村博文(2002)의 주장이다.

王惠(1997), 杉村博文(2002)이 든 여타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她把个丈夫死了’ 역시 ‘의외성’, ‘원치 않은 일의 발생’과 같은 화용적 의미가 있다. 실제로 ‘S把个NP死了’ 구문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34) a. 她年轻轻的, 把个丈夫死了.

19) 陈平(1987)의 명사구 한정성 등급에 따르면, ‘个+명사’는 비한정 명사구이다.

등급	명사구 유형	예시	한정	비한정
A	인칭대명사	你, 我	+	
B	고유명사	中国	+	
C	这/那+(양사)+명사	这(个)人	+	
D	보통명사	人	(+)	(+)
E	수사+(양사)+명사	三(个)人	(+)	(+)
F	一+(양사)+명사	一(个)人		+
G	양사+명사	(来)个人		+

20) 예를 들어 ‘老汉(노인)’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 잘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杉村博文(2002:24) 참고.

그녀는 무척 젊은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다.

b. 她真不幸, 跟丈夫离婚不久, 又把个孩子死了. (刘月华等 2004:732)

그녀는 정말 불행하다.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아이가 죽어 버렸다.

예(34a)는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 뜻밖의 사건이며 원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她年轻的’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예(35b)의 경우는 ‘真不幸’을 통해 아들의 죽음이 그녀에게 원치 않은 일이며 예상치 못한 일이었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sup>21)</sup>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她的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다. ‘她死了丈夫’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외에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她把个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의외성, 원하지 않았던 일의 발생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처럼 이 세 문장은 동일한 객관사실에 대해 각기 상이한 의미·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맺는 글

본고는 비전형적인 ‘把’字句인 ‘把个’句, 그중에서도 특히 ‘她把个丈夫死了’의 생성기제 및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구문은 전치사 ‘把’의 목적어가 비한정적 구조라는 점, 그리고 동사가 자동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의 논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구문의 생성기제를 구문내적 요인과 구문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문내적 요인은 구문이 가지는 확장력과 관련이 있다. 구문은 형식과 의미의 짝으로, 고유한 구문의미가 있다. 그런데 구문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심의미에

21) 이러한 ‘의외성’, ‘여의치 않음’은 화자의 강한 주관성을 나타낸다. 陶红印·张伯江(2000:435)에 따르면 『儒林外史』, 『红楼梦』 등의 작품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唬’, ‘气’, ‘吓’, ‘急’, ‘臊’, ‘乐’ 등의 심리나 감정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리 혹은 감정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주관성과 관련이 있다.

(a) 宝玉虽也有些不好意思, 还不理会, 把个宝钗直臊的满脸飞红, 又不好听着, 又不好说什么, 只见袭人端着茶来, 只得搭讪着自己递了一袋烟.

(b) 便问道: “怎么了? 太太姑娘们必是想二姑奶奶了.” 巧姐儿听见提起他母亲, 越发大哭起来. 平儿道: “姥姥别说闲话, 你既是姑娘的干妈, 也该知道的.” 便一五一十的告诉了. 把个刘姥姥也唬怔了, ….



서 확장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구문의미의 확장성은 여타 여러 구문에서 확인된다. ‘把’字句는 일종의 구문으로써 여타 구문들과 마찬가지로 구문내적 힘에 의해 중심의 미에서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她把个丈夫死了’와 같은 ‘把个’句가 출현한 것이며, 이것이 이 구문의 구문내적 생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她把个丈夫死了’ 생성의 구문외적 요인은 소유자-대상 구문의 영향이다. 구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으로 다른 구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她把个丈夫死了’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타동성이 강한 ‘把’字句에서 자동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소유자-대상 구문인 ‘NP1+死了+NP2’의 영향이다. 宋代에 ‘NP1+死了+NP2’가 출현하면서 자동사인 ‘死’가 목적어를 가지는 용법이 출현하고, 이후 점점 ‘NP1+死了+NP2’ 구조의 출현빈도가 증가하였다. 이후 ‘NP1+死了+NP2’ 구조의 보편화로 인해 ‘死了+NP’ 구조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타동성이 강한 ‘把’字句에서 자동사 ‘死’가 사용될 수 있게 된 가교역할을 하였다. 즉 ‘她把个丈夫死了’의 출현은 ‘NP1+死了+NP2’ 구문이라는 별개의 구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객관사실에 대해 ‘她的丈夫死了’, ‘她死了丈夫’, ‘她把个丈夫死了’라는 세 가지 통사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담당하는 의미·화용적 기능은 다르다. 먼저 ‘她的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단지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她死了丈夫’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외에 부정적, 손해, 안타까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她把个丈夫死了’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더불어 의외성, 원하지 않았던 일의 발생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처럼 이 세 문장은 동일한 객관사실에 대해 각기 상이한 의미·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조경환, 『중국어 구문론』, 한국문화사, 2014.

刘月华 等, 『使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Traugott&Trousdale,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박원기·강병규 공역, 『구문화와 구문변화』, 학고방, 2018

Adele E. Goldberg,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손영숙·정주리 옮김,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2004.

<논문>

- 남양우, 「존현구문과 소유자-대상구문 간의 관계 고찰」, 『중어중문학』, 제62집, 2015.
- \_\_\_\_\_, 「구문다의성 및 구문확장에 관한 소고」, 『중국언어연구』, 제89권, 2020(a).
- \_\_\_\_\_, 「把字句에 대한 구문문법적 해석」, 『중국연구』, 제82권, 2020(b).
- \_\_\_\_\_, 「현대 중국어 비전형적 이중목적어 구문 고찰: 01이 장소목적어인 경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88권, 2021.
- 조경환, 「현대중국어 把字句의 把-NP와 時空영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陈 平, 「释汉语中与名词性成分相关的四组概念」, 『中国语文』, 1987(2)
- 任 鹰, 「“领属”与“存现”: 从概念的关联到构式的关联——也从“王冕死了父亲”的生成方式说起」, 『世界汉语教学』, 2009(3).
- 杉村博文, 「论现代汉语“把”字句“把”的宾语带量词“个”」, 『世界汉语教学』, 2002(1).
- 沈家煊, 「句式和配价」, 『中国语文』, 2000(4).
- \_\_\_\_\_, 「“计量得失”和“计较得失”——再论“王冕死了父亲”的句式意义和生成方式」, 『语言教学与研究』, 2009(5).
- 石毓智, 「语言学假设中的证据问题——论“王冕死了父亲”之类句子产生的历史条件」, 『语言科学』, 2007(4).
- 帅志嵩, 「“王冕死了父亲”的衍生过程和机制」, 『语言科学』, 2008(3).
- 王 惠, 「从及物性系统看现代汉语的句式」, 『语言学论丛19』, 商务印书馆, 1997.
- 吴福祥, 「重谈“动+了+宾”格式的来源和完成体助词“了”的产生」, 『中国语言』, 1998(6).
- 吴福祥, 「再论处置式的来源」, 『语言研究』, 2003(3)
- 陶红印·张伯江, 「无定式把字句在近、现代汉语中的地位问题及其理论意义」, 『中国语文』, 2000(5)
- 张旺熹, 「“把”字句的位移图式」, 『语言教学与研究』, 2001(3).
- 翁姗姗, 「现代汉语非典型“把”字句研究」, 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2012.
- 宣恒大, 「现代汉语隐现句研究」, 安徽大学博士学位论文, 201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把’字句, ‘把个’句, 领主属宾句, 构式变化, 主观性, 移情				
	영문	‘把’ construction, ‘把个’ construction, ‘Possessor-subject possessee-object’ construction, Constructional changes, Subjectivity, Empathy				
<div><div>A Study of the Formation Mechanisms of ‘把个’ Construction : Based on ‘死’</div><div>Nam Ryang-Woo</div><div><p>This study focused on untypical ‘把’ construction such as ‘她把个丈夫死了’, and analysed the mechanism by which this untypical ‘把’ construction appeared by dividing them into internal and external mechanism.</p><p>Initially, ‘把’ construction expressed the meaning of treatment with strong transitivity, but gradually, ‘把’ construction with weak treatment or unrelated to treatment began to appear. This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control of the subject. As the control of the subject weakened and the influence of the speaker became stronger, unintentional treatments such as ‘她把个丈夫死了’ appeared. The motivation for this transition is subjectivity.</p><p>The ‘possessor-subject possessee-object’ construction had an external influence on the appearance of ‘把个句’. ‘把个句’ first appeared in the Song Dynasty, but it could only be combined with transitive verbs. Later, in the Ming Dynasty, it was used to combine with the intransitive verb ‘死’. This breaks the constraint that the verb of ‘把’ construction must be a transitive verb, which is likely influenced by the ‘NP1+死了+NP2’ structure.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NP1+死了+NP2’ structure, the ‘死了+NP’ structure is no longer awkward, and this seems to have been a catalyst for the intransitive verb ‘死’ to be used in ‘把’ construction with strong transitivity. In this way, we can see that the constructional meaning of the ‘NP1+死了+NP2’ structure has influenced the constructional meaning of ‘把个句’.</p></div></div>						
저 자	남양우 / 南良佑 / Nam Ryang-Woo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4.02.08.	심 사 일	2024.03.03	게재확정일	2024.03.11.